

#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에 나타난 교환양식과 교육의 양상

김영철(金映鐵)\*

## 논문 요약

이 논문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세계사의 구조』에서 개진한 교환양식론을 토대로 하여, 교육의 양상을 탐색하는 시론이다. 가라타니는 방대한 세계사를 각 시대의 교환양식에 터하여 체계화 하고자 한다. 그의 체계화는 Hegel에 버금가는 야심을 깔고 있으면서, 그 전의 Kant의 초월철학과 그 후의 Marx의 사적 유물론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세계사는 교환양식A(호수적 교환양식), 교환양식B(재분배적 교환양식), 교환양식C(상품적 교환양식), 그리고 교환양식DX(연합적 교환양식)의 지배력에 따라 네 단계로 분할될 수 있다. 이를 하여, 미니세계시스템, 세계=제국, 세계=경제, 그리고 세계공화국이다. 이는 Marx의 연구를 확장시킨 것이다. 한편,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 현실화를 기필할 수는 없으나 억압된 무의식이 회귀하는 것처럼 결코 제거할 수 없는 규제적 이념으로서의 교환양식DX는 여타의 세 교환양식과 그 교환양식들이 지배적인 사회들을 평가하는 보편적 준거가 된다. 이는 Kant의 연구를 확장시킨 것이다. 이 논문은 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세계시스템에서 드러나는 교육의 양상으로서, 교환양식A에서는 신화교육과 감각교육을, B에서는 문자교육과 무예교육을, C에서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을, 그리고 DX에서는 자율교육과 평화교육을 들고 그 특징을 논의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교육의 양상을 포괄하는 교육양식으로서 증여교육, 권력교육, 화폐교육, 그리고 연합교육을 들고 그 특징을 논의한다.

주요어 : 교환양식, 세계시스템, 규제적 이념, 교육의 양상, 교육양식

## I. 서론

가라타니(2010/2012)는 세계사 속에서 구조를 밝히고 다시 그 구조를 통하여 세계사를 조망하려는 체계적 시도를 그의 대표적 저서 『세계사의 구조』에서 시도한다. 그는 Marx가 유물론적으로 밝히고자 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를, Hegel이 관념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근대의 사회구성체의 세 가지 국면(인류적 공동체, 시민사회, 국가)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그 사회구성체의 설명원리를 교환양식에서 찾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근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국가의 기원과 그 교환양식을 탐색하고 있으며, 국가의 탄생 이전의 석기시대의 교환양식도 주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의 구조적 탐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Kant의 규제적 이념이 역사 속에서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필연성을 가지고 출몰한다고 보고, 세계사의 지향점과 종언 없는 반복을 논의하고 있다.

가라타니가 말하는 '교환', 또는 Marx의 '교통' 개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환'의 두 종류가 있다(가라타니, 2010/2012: 48-56). 그에 따르면 전자의 교환을 통해서만 후자의 교환이 드러나기 때문에, 후자의 교환만을 강조하는 논의는 공소하다 못하여 기만적이다. 가라타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환을 '교환양식'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서의 교육적 관계는 교환양식의 '교육적 측면'이기에, 교육양식과 교육의 양상에 대한 탐구는 교환양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세계사의 구조』에 등장하는 네 가지 교환양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환양식 A는 증여와 답례를 내용으로 하는 '호수적(互惠的, reciprocal) 교환양식'이다. 가라타니는 이 양식이 지배적인 역사적 단계를 '미니세계시스템'(Abcds)이라 부른다. 이 시스템은 정주혁명 이후에 나타나며, 수메르 지역에서 최초의 국가가 나타나기까지 존속하였다. 그는 정주 이전의 유동적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이동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공동기탁으로부터 오는 평등이 있었으나, 정주 이후의, 교환양식A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다.

둘째로, 교환양식B는 지배와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약탈과 재분배의 교환양식'이다(이하, 재분배적 교환양식). 그는 이 단계의 세계시스템을 '세계=제국'(aBcds)이라고 부른다. 로마제국이나 무굴제국과 같은 고유명은 '세계제국'을 일컫고, 이러한 세계제국을 중핵으로 하는 중핵-주변(margin)-아주변(sub-margin) 등의 공간적 세계판도가 세계=제국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현행화로부터 대체로 서구의 절대왕정까지의 시기에 존속하였다. 이 시스템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상실하고 있다.

셋째로, 교환양식C는 화폐와 상품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교환의 교환양식'이다(이하, '상품적 교환양식'). 그는 이 단계의 세계시스템을 '세계=경제'(abCds)라고 부른다. 고대로부터 산업자본주의는 존속하였으나, 근대에 들어 발생한 산업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노동자

로 하여금 소비자로서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되사게 하는 메커니즘을 완성한다. 이러한 세계=경제는 중심-반주변(semi-periphery)-주변(periphery)의 판도를 형성한다. 이 시스템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헤게모니를 잡았던 시기를 거쳐, '정보'를 세계상품으로 하는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넷째로, 교환양식DX는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으로서, 전면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교환양식이다. 가라타니는 'DX'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연합적 교환양식'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연합(association)'은 자율과 평화를 기조로 하며, 자본이 협업과 분업을 조직하는 '결합(combination)'과는 구분된다(가라타니, 2010/2012: 464, 주8). 연합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세계시스템은 Kant(1795/2013: 130-131)의 용어를 따라 '세계공화국(Weltrepublik)'(abcDXs)이라 불리며, 역시 Kant(1784/2009: 35)의 용어에 따라 그 현실적 대응물로서 '국제연맹(Völkerbund)'이라고 불린다. 세계공화국은 물론이고 국제연맹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라타니는 그것과 가장 유사한 현존 세계시스템으로서의 UN에 기대를 품고 있다.

『세계사의 구조』는 Marx와 Kant를 따르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는 몇 가지 방법론적, 이론적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가라타니는 Marx가 말한 '서술방법'을 따르고 있다. '서술방법'은 '연구방법'과 대비된다(강신준, 2008: 20). 어떤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마주치게 되는 현상으로부터 그것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 '연구방법'인데, 이는 철학에서 Descartes가 선호한 '분석적 방법'이기도 하다. 반면에 '추상화할 수 있는 힘(Abstraktionskraft)'(Marx, 1890/2008: 44)에 기대어 발견된 원리, 즉 모든 현상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원인으로부터 현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서술방법'이다. 이는 철학에서 Descartes를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였던 Spinoza가 선호한 '종합적 방법'이기도 하다(고쿠분, 2013/2015: 90-92). 서술방법은 무수한 연구방법의 시도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Marx(1857/2007)의 『요강』이 생산이라는 구체적 현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면, 『자본』은 상품의 가치와 가치형태라는 추상적 원리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원리는 분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발견되지만, 추상력이 없다면 분석적 방법은 단순히 귀납적 일반화에 머물거나 초험적 존재로의 비약에 빠질 뿐이다. 『세계사의 구조』는 '교환양식론'이라는 서설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교환양식들은 가라타니가 Marx의 『자본』의 방법에 의지하되, 『자본』의 내용을 변형, 확장시킴으로써 탄생한 추상적 개념이다.

둘째로, 가라타니는 Marx의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교환양식'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한다. 그에 따르면 Marx는 일관되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고자 했다. Marx는 생산양식(하부구조)을 강조했는데, 여기서의 주안점은 아무래도 생산력의 생산관계에 대한 우위에 있다. 더구나 생산력, 달리 말하여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의 강조는 여타의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경시하게 하였다(가라타니, 2010/2012: 52). 가라타니에 따르면, 전자의 관계가 노정

하는 문제는 후자의 관계를 매개로 현상한다. 만일 국가의 탄생지에서의 집약적 관계농업이 발생시킨 사막화 현상이나, 산업자본주의사회가 발생시키는 대대적인 폐기물과 폐열의 문제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도외시 하고서, 다만 테크놀로지, 자원, 환경 등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 문제로만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욕망만을 문제 삼는 근대문명비판론의 ‘천박하고 값싸고 기만적’(가라타니, 2013/2013: 47) 사유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물론 Marx는 근대문명비판론과 같은 관점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한 나머지, 국가나 네이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원적 교환양식을 부수적인 것(상부구조적인 것)으로 취급했고, 이를 교조적으로 답습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후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 가라타니의 주장이다. 그리하여 가라타니는 Marx의 생산양식 개념을 교환양식 개념으로 대체하게 된다.

셋째, 근대사회구성체 분석에서 Marx는 자본의 발생적 원인으로 상품적 교환양식을 들고 있지만, 가라타니는 상품적 교환양식과 대등한 지위에 호수적 교환양식과 재분배적 교환양식을 추가로 놓고 있다. 그는 ‘자본=네이션=국가’라는 보로메오 매듭의 근대의 사회구성체를 <그림 2>(가라타니, 2010/2012: 41)에 별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그림 1>의 교환양식과 매칭을 하면, 네이션의 발생적 원인은 호수적 교환양식이며, 국가의 발생적 원인은 재분배적 교환양식으로 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발적이고 평등한 연합주의적,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적, 평화회교무니즘적 결사체’의 원리로서 연합적 교환양식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가라타니는 단위 사회구성체의 고립적 실존을 부정한다. 그가 <그림 3>(가라타니, 2010/2012: 66)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스템은 세계사의 단계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트랜스크리티크』 이후 그가 실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고립된 사회구성체가 아니라, 복합적인 관계망을 가진 세계시스템이라는 깨달음에서 온다(가라타니, 2010/2012: 16-17). 그리하여 실지의 사회는, 가령 상품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경우 ‘산업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abCd)가 아니라, ‘근대세계시스템’으로서의 ‘세계=경제’(abCds)이다. 결국 추상적 교환양식들로부터 설명되는 구체적 사회구성체들의 세계시스템에는 ‘세계=경제’를 포함하여, 호수적 교환양식으로 설명되는 (단한)공동체가 지배적인 세계시스템, 즉 그의 용어로 ‘미니세계시스템’(Abcds), 수탈과 재분배적 교환양식으로 설명되는 국가가 지배적인 세계시스템, 즉 그의 용어로 ‘세계=제국’(aBcds), 그리고 아직 전면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규제적 이념이지만 연합적 교환양식으로 설명되는 연합적 조합체가 지배적인 세계시스템, 즉 그의 용어로 ‘세계공화국’(abcDXs) 등의 네 가지가 존재한다.

넷째, 가라타니는 연합적 교환양식과 세계공화국을 Kant의 규제적 이념의 사례로 보고, 기존의 세 교환양식들과 세계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는 『트랜스크리티크』에서 Kant의 『순수이성비판』을 Marx의 『자본』에 비견되는 유일한 책으로 평가한다(가라타니, 2004/2013: 11). 그런데 가라타니(1989/1998: 187)는 전작에서 Kant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왜 Kant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일까? 한 논문(박도영, 2011)에서는 그 이유를 가라타니가

해체론을 넘어 실천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명징성을 강박적으로 추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가라타니의 사상적 편력의 내부적 과정으로는 그런 해명도 가능할 것이지만, 우리는 Kant의 초월철학(transcendental philosophy)이 가라타니에게 준 외부적 충격, 즉 초월철학이 가지는 인식적 보편성과 필연성 그리고 실천적 윤리성에의 열망에 주목하고자 한다. 『트랜스크리틱』이 출판되기 전 해(2000년도)에 가라타니는 『윤리 21』에서 Kant의 윤리학적, 종교철학적, 역사철학적 저서를 널리 인용하면서 칸트철학 전반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특히 Kant의 『영원한 평화』를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트랜스크리틱』과 『세계사의 구조』 사이에 『역사와 반복』(2004/2008), 『네이션과 미학』(2004/2009), 『문자와 국가』(2004/2011), 『세계공화국으로』(2006/2007) 등의 예비적 저서를 출간한다. 『세계사의 구조』는 이러한 작업이 집대성된 것이며, 이후 『철학의 기원』(2012/2015), 『자연과 인간』(2013/2013), 『제국의 구조』(2014/2016) 등은 『세계사의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모든 가라타니의 저작들의 기반에는 Kant의 규제적 이념이 있다. Kant에게 있어서 이성은 구성적(constitutive)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영혼, 세계, 신과 같은 이념은 경험될 수 있는 현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지성의 성과를 규제하는(regulative) 역할만을 해야 한다. 이성의 구성적 사용은 태만하다(Kant, 1781, 1787/2006: 845). ‘나태한 이성’의 조급함은 권력과 결합하여 역사 속에서 수많은 비극을 낳았다. 만일 이성이 규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규제적 이념은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남(指南)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가라타니의 Kant 수용은 이렇하다.

이하 본론(II장)에서는 가라타니가 제시하는 교환양식들과 그 현실태로서의 세계시스템들을 설명한 뒤, 이로부터 도출되는 교육의 양상을 제시한다. 교육의 양상들은 교환양식의 수준으로 좀 더 추상화될 수 있는데, 이는 결론(III장)에서 교육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다. 추후에 교환양식에 버금가는 완성된 교육양식을 추출하고 세계시스템들의 서술에 버금가는 교육시스템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세계교육사의 구조’라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네 가지 교환양식과 교육

### 1. 호수적 교환양식과 교육

호수적 교환양식은 신석기시대의 발명품이다. 이것은 고고학적 자료와 미개사회를 연구한 문화인류학자들의 보고, 그리고 역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문화적 유습을 통해 유추된 것이다. 호수적 교환양식은 선물의 증여와 답례의 ‘전체적인 급부체계’이다. 여기서

호수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의, 향연, 의식(儀式), 군사적 봉사, 여자, 어린이, 춤, 축제, 장(場)’ 등이다(Mauss, 1924/2002: 53). 호수적 교환양식에는 흔히 경쟁과 적대의 감정이 수반되지만(Mauss, 1924/2002: 56), 여기서 핵심은 증여나, 증여된 것을 받는 것, 그리고 받은 선물에 대해 답례하는 것이 모두 의무로 된다는 사회적 메커니즘(가라타니, 2010/2012: 92)이다. 현상적으로 호수적 교환양식은 인간관계에서 증여자에게는 어떠한 명예심을 충족시키고 증여받은 자에게는 받은 것을 상회하여 되값을 의무감을 발생시킨다. 증여가 답례의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쉽게 납득이 된다. 이는 현대의 주된 인간관계가 상품교환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호수적 교환양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증여된 사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증여자에게 귀속되며, 증여받은 자는 그 사물을 단지 사용권한만 가진다. 이것이 소유권의 전면적 이전(양도)을 전제로 하는 상품적 교환과 그렇지 않은 호수적 교환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가라타니는 Marx와 Mauss를 모두 비판하면서, 호수적 교환양식을 ‘순수증여 또는 공동기탁(pooling)’의 교환양식과 구분한다(가라타니, 2010/2012: 72). 순수증여는 호수적 교환과는 달리 모든 것이 무상으로 동일하게 배분되던 정주이전의 유동적(포박적) 수렵채집민(구석기인)들의 교환양식이다. 꾸준히 거주지를 이동시켜야 했던 그들에게 수렵채집된 것들은 비축될 수 없었기에 공동으로 평등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Marx는 ‘원시공산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유동적 수렵채집민의 순수증여를 정주민의 증여와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Mauss는 순수증여를 증여와 동일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부족한 견해이다.

호수적 교환양식을 연 ‘정주혁명’은 인간사회에 부자유를 가져왔고 불평등의 가능성을 가져왔다. 정주는 공동체에의 속박과 계급분해의 가능성을 가져 온 것이다. 산 인간은 정주생활로 인하여 죽은 자와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주술이 중요한 인간적 과업으로 된다. 주술사(샤먼)는 자연의 영역에서 과학자(야금술사)이자 초자연의 영역에서 정령과 직접 접촉하는 자이다(신이치, 2002/2003: 159). 하지만 주술사는 사회의 주변에 위치했는데, 그것은 그가 금기의 영역에 걸쳐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주한 씨족사회, 부족 혹은 부족연합체는 중심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항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다. ‘피의 복수(vendetta)’는 상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부족의 남성은 항시 전사로서의 자질을 훈련받아야 했고, 이를 위하여 남자아이들의 혹독한 성년식과 남성만의 거주지가 생겨났다. 남성은 모두 훌륭한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전사로 키워졌다. 전쟁이 발발하면 남성중에서 전쟁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수장으로 전쟁수행의 전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평시에는 경원되었다. 탁월한 무력은 권력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수장 제로니모의 거의 자살에 가까운 최후는 탁월한 무력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잘 보여준다(나가자와, 2002/2003: 172-175).

호수적 교환양식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동맹을 가져오기도 한다. Clastres는 부족

간에 동맹의 창설을 호수제의 의미로 본다. 반면, Malinowski나 Lévi-Strauss는 교역에 전제되어야 할 평화의 창설을 호수제의 의미라고 본다(가라타니, 2010/2012: 80-81). 자급자족보다는 집단별 분업에 따른 교역이 상호이득을 가져다주고, 교역은 평화가 창설될 때만 가능한 것인데, 바로 그 평화를 창설하는 방식이 호수적 교환관계라는 것이다. 가라타니는 호수의 의미를 ‘전쟁과 교역’ 모두에서 취하면서도, 전자에 기울고 있다. 평화에 따른 교역은 일시적인 것이며, 오히려 전쟁은 상시적인 것이다. 원시사회의 부족 간의 전쟁은 권력의 최고중심이 없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국가가 현행화된다면 이러한 부족 간의 원시전쟁은 종식될 것이다. Hobbes는 그것을 평화의 창설(‘획득된 커먼웰스’)이라고 보겠지만, 그것은 국가의 입장일 뿐, 원시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성의 박탈 혹은 강요된 평화에 불과하다. Clastres가 보기에 원시사회의 전쟁은 바로 국가의 현행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런 의미에서 원시사회를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부른다(Clastres, 1974/2005: 11장). 가라타니는 Freud의 『토템과 타부』를 인거하면서 부친살해를 새로이 해석한다. 그것은 현행화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예기 살해’하는 원시사회의 방지책이라는 것이다(가라타니, 2010/2012: 102-103).

호수적 교환양식은 모든 사물에 영혼과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다는 원시사회의 세계관을 보여준다(Lévy-Bruhl, 1922/2011: 47-49). 정주 이전이나 정주 이후나 원시인은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따르면 호수되는 사물이 단지 ‘나-그것(es)’의 관계가 아니라 ‘나-너(du)’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가라타니, 2010/2012: 97-101). 하지만 애니미즘적 사고가 호수적 교환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참은 그 역이다. 사람들 사이의 호수적 교환은, 자연과의 호수적 교환과도 동형적이다. 이로부터 정령들의 족보와 인간과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원시사회의 신화가 탄생한다. 흔히 신화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와 비교되어 ‘미개한 사고’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신화는 ‘인류 최고의 철학’이자 ‘야생의 에티카’인 것이다(나가자와, 2001/2002: 31). 호수적 교환양식 하에서의 교육은 신화교육과 감각교육이 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신화교육을 보면, 신화의 완성된 형태는 주술사와 한 부락을 이끄는 행정적 지도자인 추장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립되어 터부시되는 주술사와는 달리, 신화교육의 진정한 전승자는 추장이다. Lowie(1948; Clastres, 1974/2005: 3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추장은 1) 집단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이고, 2) 인색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아낌없이 베푸는 자이며, 3) 말솜씨, 노래와 춤에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평화시에 지도자로서의 추장은 전시에 전권이 부여되는 수장(군사지도자)이나 위기 시에 두려움을 갖고 찾게 되는 주술사와는 다른 존재이다. 그는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그는 형을 연도하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타협점을 찾는 중재자이다. 그는 사회의 불안요소, 즉 특권계급의 지배를 스스로 부인하기 위해 가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 반대급부로 그가 얻는 것은

몇 명의 부인들이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남미의) 어떤 인디언 부족에서는 추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추장이 다른 누구보다도 소유물이 가장 적고 초라한 장식물만을 지녔기 때문이다(Clastres, 1974/2005: 40-41). 이런 경우의 추장을 문화인류학에서는 대인(bigman)이라 부른다. 그는 새벽이나 황혼 무렵에 큰소리로 말을 한다. 아마도 신화적 이야기를 떠들고 있겠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그는 노래와 춤을 섞어 혼신을 다해 말한다. Clastres(1974/2005: 195)는 원시사회에서의 추장의 말이 가지는 지위를 '폭력의 대극적 위치'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감각교육을 보자. 신은 추상적 스피리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에 부착되어 있는 '마나'나 '하우'와 같은 정령적 존재이다. 이러한 정령에 대한 감각은 범주적 이해의 능력이 아니라 감성적 직관의 능력을 요구한다. 습기와 열기, 사소한 진동과 소리, 움직이는 것과 그 속도, 단맛과 그 냄새를 빨리 포착하고 이를 정확히 표상하는 능력은 원시인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였다. 물론 이러한 능력은 인간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같은 호모 속(屬)에 속하던 인류를 기원전 7만 년 전부터 만년에 걸쳐 모두 절멸시키고 살아남은 유일한 종(種)이 사피엔스라고 할 때(Harari, 2011/2015: 22-41), 더 두려운 존재는 자연이 아니라 타인이다. 원시인의 '침묵교역'이라는 것도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저 사람과 저 물건이 내게 호의적인가 적대적인가를 알기 위해 고도의 미세지각능력이 요구되었다.

원시인은 전쟁과 교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락권역 내부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교육은 공동생활을 통한 일상적 시범과 모방, 그리고 특수한 의례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가령, (남자)성년식과 '남자의 집'이 그 예가 된다(정규영, 2011: 39-45). 남자를 여자의 세계로부터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성년식이 일생에 한번인 통과 의례라면, 남자의 집에서는 남자들끼리의 일상이 전개된다. 물론 남자의 집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타의 모든 집이 여성과 어린이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성년식과 남자의 집이 특권적인 교육제도라면, 그것이 길러내는 인간상은 전사, 일상적으로는 사냥꾼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탁월한 전사(수장)보다는 추장이 원시사회의 이상적 인간상이다. 추장은 신화를 완전히 체득한 인물이자, 미세지각의 달인이었기 때문이다.

## 2. 재분배적 교환양식과 교육

재분배적 교환양식은 '약탈과 재분배' 또는 '지배와 보호'의 교환양식이다(가라타니, 2010/2012: 41). 이는 중심의 권력이 약탈적으로 재원을 징발하되 이것을 재분배하며, 무력에 기반하여 지배를 하되 피지배민을 보호해주는 교환양식이다. 사회체(societas) 위에 설립된 국가체(civitas)는 주권(imperium)이라는 중심의 권력을 갖는다(Matheron, 1969/2008: 8장). 주권은 군



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과 같은 정치체제보다 상위 개념으로서(가라타니, 2010/2012: 119), 가령 군대, 소유제, 지도자 충원방식, 자문부, 집행부, 사법부, 통제부, 종교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체의 정점이다. 사회체는 주어진 영토를 기반으로 인간들이 모여 살림살이를 영위하는 것이다.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거두어들인 것을, 증여의 외양을 띠면서, 국가체의 여러 부분에 재분배하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대비하거나 수행하면서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한다. 요컨대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권력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힘이다.

Clastres(1974/2005)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원시사회, 즉 교환양식A를 지배적인 교환양식으로 하는 사회가 국가의 탄생을 저지하였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주권의 중심화를 국가의 핵심적 특징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주권의 중심화는 없던 주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분산되어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주권이 미리 저지되어 집중화된 형태로 현행화(actualization)되지 않았던 것이다. Deleuze와 Guattari(1980/2001: 825-828)가 Nietzsche의 원국가(Urstaat) 가설에 입각하여 Clastres를 비판할 때의 요점이 이것이다.

재분배적 교환양식은 어떻게 현행화하는가? 그것은 공동체 간의 대규모 정복전쟁을 계기로 삼는다. 전쟁의 전권을 가진 수장이 공동체의 수장노릇을 할 때, 다시 말하여 내부적으로 전리품을 재분배하여 민심을 얻고, 외부적으로 피정복민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교환관계가 발생할 때이다(가라타니, 2010/2012: 123). Weber가 국가를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로, Hobbes가 ‘공포에 의해 강요된 계약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듯이(가라타니, 2010/2012: 119), 무력과 공포 그리고 재분배와 보호에 기반한 교환양식B 하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적 정조는, 교환양식A 하에서의 명예심과 의무감보다는, 지배욕과 복종심으로 된다. 정주를 통해 하락된 여성과 아이의 권리는 이제 주권의 중심화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추락하는 반면, 무력의 사용에 익숙한 남성들의 권리가 상승한다. 또한 교환양식B는 평등과 자유를 훼손한다. 쿠아키우틀(Kwakiutl) 족의 포틀래치(Potlach)와 같이 증여를 통한 불평등의 역제는, 주권의 중심화로 인하여 주변화, 약화되고, 그 중심화는 결국 계급분해와 부의 집중을 가져온다. 국가가 직접 교역의 주체로 나서기에 상업적 경제도 국가의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증여의 힘과 화폐의 힘보다 중심화된 권력의 힘이 지배적인 것으로 된다. 중심화된 권력으로 인해 인간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기에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지만, 이전의 호수적 교환관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가라타니, 2010/2012: 121). 호수적 교환관계가 금지되는 것은 공동체 내부 모순의 호수원리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독점적 주권의 타율적 해결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권은 자신이 공동체적 시혜자인 듯이 보이고자 하지만, 교환양식의 근본적 성격은 이미 호수적인 평등성이 아니고 권력적인 불평등성이다

이러한 재분배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구성체는 ‘전제국가(부역공납국가)’라고 불린다(가라타니, 2010/2012: 167). 이전제국가가 주변의 공동체나 도시국가를 복종과 보호의 교환관계

아래 거느리게 될 때 '세계=제국'이라는 세계시스템이 된다. 세계=제국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가라타니, 2010/2012: 168-169). 첫째, 세계제국이 발행하는 세계화폐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교역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공동체를 넘어선 국제법이 필요하다. 이 법은 사회구성체 사이의 갈등에만 개입할 뿐, 세계제국 이외의 다른 국가나 공동체의 내부문제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셋째, 세계종교가 요구된다. 이는 주권에 저항적인 보편종교와는 달리, 세계=제국의 유지에 기여한다. 넷째, 세계언어가 요구된다. 이것은 세계제국의 문자언어로서, 세계=제국에 존재하는 다수의 구어는 언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Hegel이나 Marx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사는 단선적인 전개를 보이지 않는다는지, 서구적 허구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리스-로마제국은 아시아적 제국의 모방이었다든지(가라타니, 2014/2016: 117) 하는 가라타니의 역사적 안목을 자세히 논할 지면은 없다. 하지만 가라타니의 역사 공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교환양식B가 지배적이었던 이 장대한 시기는 '중심-주변-아주변-권외'로 공간화될 수 있다(가라타니, 2010/2012: 193). 우선, 중심에는 아시아적 전제국가를 모델로 하는 '제국'이 자리한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등의 제국은 모두 커다란 강의 하구에서 발생했다. 이 고대국가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하구에 정주하여 세워진 여러 원도시들 간의 교역과 전쟁 속에서 현행화한다. 이제 수장 또는 추장은 왕으로 '비약'한다. 중심화된 권력을 가진 고대국가는 인간의 협업과 분업을 조직하고 집약적 집단농경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제국의 '주변부'에는 제국으로부터 수탈과 동시에 보호를 당하면서 제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주변국들이 있다. 그런데 중심의 제국과 주변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면, 세 번째로, '아주변'은 제국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봉건제 사회이다. 가령, 중세의 서유럽은 그 동쪽에 있던 동로마제국과 사라센제국을 중심으로 볼 때 아주변이고, 일본은 중국제국에 대해 아주변이었다. 봉건제란 누구도 절대 우위에 설 수 없는 다원적 상태의 사회이다. 가령, 서유럽의 봉건사회는 왕, 귀족, 교회, 도시, 황제 등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연합하고 있었다. 서구 근대정치학자들이 언급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자연상태'는 중세의 서유럽에 걸 맞는다. 마지막으로, 이 아주변의 바깥에 흩어져 있는 '권외'라는 지역은 중심이나 주변 또는 아주변의 세력에게 밀려난 미개사회를 말한다.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이 미개사회는 호수적 교환양식을 중심으로 했던 선사시 사회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미개사회는 제국의 판도에서 권외로 밀려나 고립적으로 삶을 이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중심적 주권은 '전사=농민'을 선호하는 유목민과 씨족사회를 관료제적 전제국가에 복속시켰다(가라타니, 2010/2012: 134). 수장과 구성원 사이의 호수적 독립성이 사라진 곳에 위계적인 관료제가 생겨난다. 또한 전제국가에서는 내부적 반란이나 외부적 전쟁에 대비하여 주권에 복종하는 무력으로서 상비군이 생겨난다. 군대의 사적 소유는 금지된다. 이처럼 관료제와 상비군은 전제국가를 유지하는 양대 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분배적 교환양식에서의 교육은 문자교육과 무

예교육이 주종을 이룬다.

관료제를 필요로 하는 전제국가가 시작될 때 문자와 학교가 발명된다. 최초의 학교는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며, 문자는 국가의 관료가 되는 데에 필수적 내용이다. Bowen(1972: 12-16; 정규영, 2011: 67-69에서 재인용)은 인류 최초의 국가를 세운 수메르의 기원전 2,100년경의 유물을 토대로 당시의 학교교육을 재구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수메르의 학교는 국가의 관료로서의 서기(scribe)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 진로는 사원, 법률, 의료, 상업, 군대, 교직 등이었다. 학교에서는 문자의 기초를 교육하고, 국가부서에서는 도제식으로 실무적 훈련을 한다. 그런데 Bowen의 견해 중 문자교육이 기초교육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은 과연 보편적인 현상일까? 고대 그리스나 동양의 경우를 보면, 전적(典籍)을 탐구하는 문자교육을 위해 매우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없는 문화는 많이 있지만, 문자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문자교육은 국가의 관료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료제와 문자교육과 더불어 국가의 유지에 필수적인 다른 한 기둥은 상비군과 무예교육이다. 상비군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무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린 시절부터의 훈련에 더하여 무예에 숙달하는 데에는 실전경험이 중요하다. 가령, 로마제국에서는 유력한 가문 출신의 야심 많은 젊은이는 일찍부터 아버지나 집안의 유력한 친척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였다. 로마의 정치가들은 대개 젊은 시절에 전쟁지도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군인은 혼인도 금지되었다. 상시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제국의 외연을 넓히던 때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대의 특성 때문이다. 로마의 위대한 정치지도자는 수 개의 군단을 이끄는 군단장으로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무예교육의 진정한 학교는 전쟁의 현장이었다.

### 3. 상품적 교환양식과 교육

상품적 교환양식에서 상품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판매를 전제로 생산된 사물로서,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물이다(Marx, 1890/2008: 87). 사용가치는 상품의 유용성의 측면으로서 실지로 투여된 구체적 노동에서 연유한다. 한편 가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평균노동시간의 측면으로서 추상적 노동에서 연유한다.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상품의 이중성은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라는 노동의 이중성과 조응한다. 가치는 상품들의 상호비교와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가치는 단순한 가치형태로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형태적 변화를 거치며 일반적 가치형태에 이르는데, 마지막에 이른 일반적 가치형태의 일반적 등가물이 '화폐'이다. 그런데 화폐는 본디 그 자신도 하나의 상품이지만, 이제 일반적 등가물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면, 다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질권'을 가지게 된다. 여타의 상품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이다. 왕이 스스로 자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으로 여기는 자가 비로소 왕으로 뒀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이 왕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화폐의 물신성). 여기에서 인간관계는 시대적 특수성을 띠게 된다.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비교의 지배적 척도는 화폐로 되고, 화폐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하듯이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화하기 때문에, 인간은 시장에 나온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된다.

자본은 이윤을 얻기 위해 투여되는 화폐이다. 노동이 만들어낸 상품 중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위치에 선 화폐상품이 자기증식을 위하여 인간노동력을 구매하고 지배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자본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품화' 하는데, 그 중에는 노동력이라는 특이한 상품이 있다. 화폐를 축장하는 어리석은 수전노와는 달리, 영리한 수전노인 자본가는 화폐를 더 큰 화폐로 만드는 방법을 안다. 원격지교역을 통한 지역 간 상품가격의 차이에서 이윤을 얻는 상업자본가와 달리, 산업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하여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다시 그 생산된 상품을 노동자로 하여금 되사게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방법을 사용한다(가라타니, 2010/2012: 274-275).

산업자본주의에서 지배적인 상품적 교환양식은 다른 교환양식과 공존한다. 친밀성의 정서로 묶인 1차 집단에서는 여전히 선물을 호수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는다. 선물의 증여와 상품의 교환은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나가자와, 2003/2004; 이진경, 2010), 선물의 경제는 상품의 경제에 의해 침식된다. 국가는 징세에 기초하여 자본의 이윤 또는 노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고, 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징세권과 무력의 독점적 소유자로서 국가는 자본과 결탁한다. 연합적 교환양식은 근대세계시스템에서도 미미하게나마 존재한다. 근대적 사회구성체는 자본과 네이션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으로 나타난다. 네이션은 자본=국가에 의해 사라져 가는 과거 농촌공동체의 호수성을 상상적으로 대리보충한다(가라타니, 2010/2012: 303). 네이션은 혈연, 지연, 언어공동체를 기반으로 평등감과 소속감, 한 마디로 우애의 감정을 회복시킨다. 자본은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하여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본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한다. 네이션은 이러한 자본에 대항하면서 우애로운 평등을 국가에 강요한다. 이처럼 자본과 네이션과 국가는 상호 견제하면서 의존하는 보로메오의 매듭을 형성한다.

상품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세계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모직물이나 사치품과 같은 고가품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중계무역에서 네덜란드에 뒤진 영국은 값싼 일용품을 생산하여,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로서 되사는 방식으로 자본이 이윤을 얻는 '아래로부터의 메뉴팩처'를 진행했다(가라타니, 2010/2012: 285).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영국이 이미 세계=경제에서 헤게모니를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수적 교환양식의 거점으로서 농촌공동체는 전지구적으로 점차 소멸되어간다. '자유로운' 유희 노동력, 즉 생산수단은 없으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수밖에 없는 노동력이 넘쳐날 때 산업자본주의는 번성하

고, 자본은 확대재생산 되는 한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에, 농촌공동체의 공동화는 필수적 조건이다. 국가는 징세의 많은 부분을 투여하여 직인의 도제제와는 성격이 다른 근대적 학교를 지원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표준화되고 창의적인 노동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자본,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국가, 제국의 몰락과 분해로 인위적으로 건립되었으나 호전적 민족주의로 몸살을 앓는 네이션에 대항하는, 연합적 교환양식에 기반한 조직들도 상존한다.

상품적 교환양식 하에서의 교육은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Durkheim(1956: 67)의 교육의 정의에 드러나듯이, 전자는 네이션=국가의 집합적 표상의 공유를 겨냥한 보편적 교육이고, 후자는 자본에 결합된 분업노동의 숙달을 겨냥한 특수적 교육이다. Kant가 감성, 지성, 그리고 상상력과 같은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를 당연하게 가정하듯이, Durkheim은 이 보편적 교육과 특수적 교육의 조화를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인다. 또한 Kant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지성적 판단력의 규정성을 강조하듯이, Durkheim은 보편적 교육의 선차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상품적 교환양식 아래서는 뒤르켐의 조화의 추측은 참일지 모르지만, 선차성의 추측은 뒤바뀐다. 즉, 특수적 교육이 보편적 교육보다 선차성을 가지는 것이다. 시민교육만을 고지식하게 추구하는 교사는 무능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시민교육은 모름지기 직업교육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령은 직업교육인 것이다.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인가? 그 좋음의 척도는 모든 상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 화폐로 되며, 최고의 직업은 자본가이다. 차선의 직업은 자본으로부터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자본가는 단지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증식시키는 자이다. 자본의 증식을 위해 그는 노동력, 토지, 인간관계, 유무형의 문화재, 상징 등 모든 것을 구매한다. 자본가에게 ‘What money can't buy’란 존재하지 않는다.

교환양식C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길러내지는 인간은 심성이 착한 아이가 아니라 성공하는 아이이다. 적어도 성공하는 인간이 이상적 인간상이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순수증여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노후의 보장자원이며, 부모는 효성으로 봉양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장’이다. 증여와 답례는 상품교환으로 대체된다. 지배와 보호의 교환관계는 더 이상 정당한 권위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지 못하며, 오직 효율적 비즈니스의 역량과 이에 따른 목종이 있을 뿐이다. 징세를 통한 재분배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 차이에 따라 당파적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교환적 정의’(가라타니, 2010/2012: 375)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은 자본의 증식에 유용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이 자본가가 되고자 할 때, 그는 우선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은 직인의 도제식 훈련과는 달리, 어떤 직종으로 이동을 해도 적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함양을 목표로 한다. 공교육은 읽기, 쓰기, 셈하기의 단순한 능력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적 능력에 이르기까지 위

계화되고 표준화된 학제를 갖추고 있다(가라타니, 2010/2012: 287). 이 기간학제의 이력 관리는 국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집합적 경쟁이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공교육을 두고 벌어지며, 그 결과 '사교육'이라는 지식상품이 번성한다. 공교육의 전통적 목표는 국가관료가 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공교육의 목표는 직업교육(trade education)이다. 공교육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교육적 요구가 일치하는 것은 네이션의 힘 때문이다. 공교육에게 자본은 자본에 봉사할 노동력을 요구하고, 국가는 국가발전에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데, 국가발전에 유용한 인재란 자본에 봉사하는 노동력과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는 자신의 외연을 한정하면서 네이션의 공동체적 요구에 응하는 것뿐이다.

#### 4. 연합적 교환양식과 교육

연합적 교환양식 또는 교환양식DX는 이념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교환양식A, B, C와는 다르다. 물론 교환양식DX도 추상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교환양식과 동일하다. 즉, 교환양식A가 세계미니시스템(AbcDs)으로부터, 교환양식B가 세계=제국(aBCds)으로부터, 그리고 교환양식C가 세계=경제(abCds)로부터 추상된 것인 것처럼, 교환양식DX는 세계공화국(abcDXs)으로부터의 추상이다. 그런데 세계공화국은 고사하고 그것의 현실적 대응물인 국제연맹조차 현존하지 않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환양식DX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불 선사와 역사시대에 실존했던 'd'로부터 '추리'될 수밖에 없다. 이 추리된 교환양식DX가 지배적이 될 세계시스템을 가라타니는 '세계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국제연맹'은 국제법을 혐오하는 적대적 경향성의 흐름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상적) 이념으로서의 세계공화국에 상응하는 소극적(현실화 가능한) 대응물이다. 하지만 국제연맹조차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계시스템이며, 가라타니가 현실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유사 현존체는 UN이다.

Abcds, aBCds, abCds에서 발견되는 'd'의 사례들은 매우 많다. 가령, 신과 인간의 관계를 주술적 호수관계로 보지 않았던 유대교라는 보편종교, 이오니아 지방에 산재한 식민 도시에서 탄생한 이소노미아(isonomia, 무지배)라는 정치사상, 그리고 국가를 노동자의 자발적 결사체로 대체하고 비자본제적 경제를 창출하려는 어소시에이셔니즘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 사례들을 보면, 'd'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는 지배적인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에 교환양식DX라는 이념적인 형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으로서의 교환양식DX는 포괄성, 필연성, 준거성 등의 특징을 띤다. 첫째로, 교환양식DX의 포괄적 이념은 '자유와 평등'으로 집약된다. Abcds에서는 정주로 인한 자유로운 유동성의 상실, aBCds에서는 자유의 상실과 더불어 계급분해로 인한 불평등의 만연, 그리고 abCds에서는 자본에 속박된 노동이 가져오는 불평등이 문제로 되는 반면, 교환양식DX가 지배적인 세계시

시스템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둘째로, 교환양식DX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필연성의 메커니즘에 따른다. 유동적 수렵채집사회 이래로 인류가 잃어버린 자유와 평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억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Freud 식으로 말하여 억압된 교환양식DX는 언제나 역사적 현실 속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셋째로, 교환양식DX는 보편적인 이념이어서 여타의 교환양식들을 평가하는 도덕적 준거가 된다. Kant의 『순수이성비판』에 따르면, 이성인 인식의 영역에서 규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경험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성과 총체성을 희구하는 이성을 구성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념에 대한 오류와 이율배반을 노정하여 독단과 회의 사이를 표류하게 된다. 교환양식DX는 이념이되 오로지 규제적으로, 다시 말하여 다른 여타의 특수한 교환양식들을 규율하고 사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라타니(2010/2012: 40)는 교환양식DX는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교환양식DX가 포괄성, 필연성, 준거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집약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보편적 성격을 가지는 교환양식DX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출몰할 것인데, 그것은 교환양식B와 C를 지양하고자 하면서, 교환양식A를 차이나는 방식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국가와 자본의 지양 앞에서 망설인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 할까? 전자의 가능성의 가늠은 망설임이며, 후자의 정당성의 요청은 의구심이다. 해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자는 후자 여부에 따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환양식B와 C를 지양한다는 것은 그것의 ‘폐기’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폭력성과 수단성이라는, 재분배적 교환양식과 상품적 교환양식의 부정적 측면은 폐기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자주적 관리(박가분, 2014: 315-321)와 공동체 간의 경제적 교역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보존되어야 한다.

국가는 태생부터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의 주권은 대내적 수탈보다는 대외적 전쟁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국가의 재분배는 수탈이후에 오고, 안전한 보호는 정복이후에 온다. 가라타니는 Rawls가 주장하는 재분배적 정의(B)가 아니라 교환적 정의(DX)가 진정한 정의라고 보며, 공포의 균형을 넘어 적대의 종식이 진정한 평화라고 본다(가라타니, 2010/2012: 375). 한편, 자본은 교환양식DX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수단화’라는 문제를 갖는 것으로 판정된다. 모든 것을 상품화 해버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동일한 가치의 척도로 재단하고 비교하는 것이며, 그 무한한 구매의 권리에 현혹되어 화폐를 연물로서 추구하기도 하고 물신으로서 숭배하기도 하는 도착적 충동에 종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인간노동력이나 자연생장력은 결코 공장에서 상품으로 생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급된다.

교환양식B와 C가 극복의 대상인 반면, 교환양식A는 ‘고차원적으로’ 회복될 대상이다. 여기서 ‘고차원적’이라는 말은 교환양식A가 지배적인 사회구성체의 폐쇄성과 그로부터 오는 자유의 축소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되, 그 교환양식이 가지고 있는 호수성을 보존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력을 발휘해 볼 때, 교환양식A가 지배적이 되기 이전의 유동적 수렵채집민들은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평등을 누렸다. Sahlins(1972/2014: 1장)는 『석기시대 경제학』에서 수렵채집민의 사회를 ‘원초적 풍요사회’라고 본다. 가령, 안헨랜드 원주민들은 재화를 공유분배하고 집단으로부터도 항상 떠날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간헐적으로 하루 4-5시간만 일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Sahlins, 1972/2014: 48-49). 교환양식A가 지배적인 사회는 호수를 통하여 불평등의 심화와 그 귀결로서의 국가의 현행화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나, 정주로 인한 부자유를 피할 수는 없었다. 요컨대, 교환양식DX가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이라는 말은 호수성을 통한 평등의 시스템을 반복하면서 표방적 수렵채집민이 누리던 자유를 회복하는 것으로 된다. 미래에 그것은 어떤 세계시스템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가라타니는 UN에 군비를 증여하는 일을 진정한 혁명의 관건이라고 본다(가라타니, 2010/2012: 430). 물론 그것이 세계동시혁명으로 귀결될지, 자본=국가의 거부로 실패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증여에는 고유한 힘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군비의 방기라는 방안은 비현실적인 방안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가라타니(2010/2012: 194)는 강대국의 군비경쟁과 위협, 그리고 강대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포의 균형이야말로 공상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교환양식DX에 상응하는 미래의 교육은 무엇일까? 세계공화국은 규제적 이념일 뿐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뿐, 그 미래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는 교육은 세계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지, 세계공화국에서의 교육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교육은 세계공화국에서의 교육과 다른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공화국(abcDXs)에서의 교육은 단지 상상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형태로서의 AbcD, aBCd, abCd에서의 ‘d’의 교육적 측면(III. 결론’에 설명될 바와 같이, 이는 정확히는 ‘교육양식’이다.)으로부터 추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상으로서의 세계공화국에서의 교육은 역사상 있어왔던 연합적 교환양식의 교육적 측면과 다르지 않다. 가령, 그리스의 자유교육이나 공자학단에서의 유학교육 등은 세계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국지적인(d’) 교육이면서, 동시에 세계공화국에서의 전면적인(‘DX’) 교육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징으로서 자율교육과 평화교육을 들 수 있다.

자율은 자유로부터 온다. 교환양식C로부터 공동체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 등이 귀결된다(가라타니, 2010/2012: 286). 이러한 산업자본주의적 자유는 진정한 자유인가? 다시 말하여 이러한 자유는 자율인가? 자율(autonomy)의 어원 ‘nomos(법칙)’가 보여주듯이, 자신의 행위가 주관적 준칙(maxim)에 따르되 그 준칙이 객관적 도덕법칙의 형식에 맞을 때 그 행위는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의 국면에서 오성이 감성에 순수개념(범주)을 부여하듯이, 실천의 국면에서 이성은 도덕법칙을 부여한다. 그 보편적 도덕법칙의 정식, 즉 ‘순수실천이성의 근본법칙(Grundgesetz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은 ‘너



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Kant, 1788/2009: 91)로 집약된다. 한 마디로 자유로운 의지는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자연의 인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가능함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실천이성의 자기입법성은 자유에 부가되는 '과도함(excess)'의 의미를 불식시켜 준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이고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과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경계나 금기를 넘어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제한하는 훈육(Bildung)은, 교육의 목적은 아니나, 교육의 조건은 될 수 있다.

평화는 평등으로부터 온다. 교환양식B는 '폭력의 독점'에 기반하고 있다. 탁월한 리바이어던도,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양대 세력도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권력은 분배적 정의를 말할 때조차, 교환양식B 자체에 내재한 부정의와 불평등을 감추고 있다. '원국가'라는 말은 인간 심성에 불박혀 있는 명예욕내지는 지배욕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영원한 평화'가 교회 묘지의 현판에 쓰인 문구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 되려면, 폭력과 지배욕에서 나오는 적대의 미봉이 아니라 그것의 종식이 요청된다. 이 적대의 종식은 국가권력의 재분배로 가능할 것인가? 다시 말하여, 다수지배의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적대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가라타니의 응답은 부정적이다. 다수에 의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도 국가권력에 의한 지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와 준별하여 이오니아 폴리스의 정치원리인 '이소노미아'를 가지고 온다. Arendt에 따르면, 이소노미아는 '헤로도토스 이래 시민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화되지 않고 무지배(no rule)관계 하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정치조직의 한 형태'(가라타니, 2013/2013: 28, 역자 주 7에서 재인용)를 의미한다. 평화교육이 말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나 공포를 통한 일시적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이다. 영원한 평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사회성, 이기심, 공격성의 극복을 요구한다. Kant는 역사철학적 국면에서 이러한 '반사회적 사회성(ungesellige Geselligkeit)'이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합목적성에 일치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한다(Kant, 1784/2009). 하지만 평화교육의 국면에서 보면, 그러한 반사회적 사회성의 극복은 참으로 지난하고 무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환양식DX는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이기에, 교육의 양상 또한 그러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자율교육과 평화교육은 신화교육과 감각교육의 고차원적 회복이라는 것이다. '고차원적 회복'이란 부정하면서 유지하는 것이며, 한 마디로 '자유로부터 오는 평등'(가라타니, 2010/2012: 104)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속박 상태에 있는 신화교육과 감각교육은 보편적 자율의 교육(학문교육과 도덕교육)으로 인해 보편적 평화의 교육(종교교육과 심미교육)으로 지양될 듯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탐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 III. 결론

본론(II장)에서는 가라타니의 『세계사의 구조』에 나타난 네 가지 교환양식들로부터 여덟 가지 교육의 양상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호수적 교환양식(교환양식A)으로부터는 신화교육과 감각교육, 재분배적 교환양식(교환양식B)으로부터는 문자교육과 무예교육, 상품적 교환양식(교환양식C)으로부터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연합적 교환양식(교환양식DX)으로부터는 자율교육과 평화교육이다. 그런데 왜 하나의 교환양식에서 두 개의 교육의 양상이 나온 것일까? 게다가 그 여덟 개의 교육의 양상은, 교환양식의 추상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추상적이지 않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반성전대 그 이유는 추상적인 교환양식과 더불어 반추상-반구체적인 세계시스템과 구체적인 사회구성체들의 사건과 사실이 교육의 양상의 추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상, 반추상-반구체, 그리고 구체라는 삼중조직은 다름 아닌 『세계사의 구조』의 모양새이다. 그 저서의 추상적 유전자는 네 가지 교환양식들이지만, 반추상-반구체적인 골격은 미니세계시스템(AbcDs), 세계=제국(aBCds), 세계=경제(abCds), 세계공화국(abcDXs)이라는 세계시스템의 단계들로 짜여있으며, 구체적인 삶과 피는 단위 사회구성체, 즉 Abcd, aBcd, abCd, abcDX의 복잡한 교류와 착종, 그리고 수많은 인류사의 사건과 사실들로 채워져 있다. 삶과 피는 ‘세계사’를 이루고, 유전자는 ‘구조’를 이루며, 골격은 세계사와 구조를 연결한다.

이 논문에 제시된 교육의 양상은 교육양식으로 좀 더 추상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교육의 양상들이 교육양식의 측면들이 되도록, 바로 그 교육양식을 규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교육양식은 교환양식의 교육적 측면이다. 이리 보면 교육의 양상들은 교환양식의 ‘측면의 측면들’로 된다. 호수적 교환양식에서는 ‘증여교육’, 재분배적 교환양식에서는 ‘권력교육’, 상품적 교환양식에서는 ‘화폐교육’ 그리고 연합적 교환양식에서는 ‘연합교육’이 각 교환양식에 상응하는 교육양식이다. 첫째로, 신화교육과 감각교육은 증여교육의 두 측면이다. 호수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물에 비물체적인 정령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공동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치제에는 강한 정령이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물의 위계가 신화의 질서를 이룬다. 신화교육은 공동체적 질서와 연관되어 중시된다. 또한 호수공동체는 모든 사물에 부착된 비물체적 힘을 감지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교역의 국면에서나 전쟁의 국면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문자교육과 무예교육은 권력교육의 두 측면이다. 국가의 주권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필요로 한다. 문자 없는 국가는 없으며 문자교육은 관료가 되어 주권에 근접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징병이든 용병이든 무예교육을 통한 숙달된 무인은 상비군의 지도자가 되어 주권에 근접할 수 있다. 셋째로,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은 화폐교육의 두 측면이다. 일반화된 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상품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시민교육의 윤리적, 법적 내용들은 화폐가 상품에게, 자본이 노동에게 가하는 제한이다. 또한 화폐는 상품생산, 유통, 소비

에 필요한 다양한 직종을 구획하고 그 직종의 인력을 (직업)교육한다. 넷째로, 자율교육과 평화교육은 연합교육의 두 측면이다. 연합체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구성원 누구라도 이성적 존재들인 타인을 수단으로 소외시키지 않는다. 그 자율적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교육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연합체는 공정하면서도 호의적인 관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 연합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통과해야 한다.

힘의 철학자 Spinoza(1677/2007: 162-164)에 의거하면, 각각의 교육양식은 ‘힘(potentia)’을 보유하고 있다. 잠재적이며 자연권적인 힘 개념은 현행적이며 법제도적인 ‘권력(potestas)’과는 다른 것이다(진태원, 2005: 312-319). 한 세계시스템의 힘이 지배적인 교환양식에서 나온다고 할 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호수적 교환양식의 힘은 ‘증여’에서 나오고, 재분배적 교환양식의 힘은 ‘권력’에서 나오며, 상품적 교환양식의 힘은 ‘화폐’에서 나온다. 그리고 연합적 교환양식의 힘은 바로 ‘연합’에서 나온다. 그리하여 각각의 교환양식이 보유한 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특정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이다.

교환양식A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증여자, 가령 포틀래치에서 어마어마한 담요를 증여하는 쿠아키우틀 족의 한 추장이 떠오른다. 교환양식B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권력자, 가령 북방 야만족을 평정하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귀족정을 종식시키려다 원로원들에게 암살된 카이사르가 떠오른다. 교환양식C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자본가, 가령 관료제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기업의 간부회의에서 호령을 하는 한 재벌총수가 떠오른다. 교환양식DX가 지배적인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자면, 윤리적이거나 모범적인 예언자(가라타니, 2010/2012: 208-216), 가령 레위족 성원들에게만 성직을 허용하는 유일한 실수를 제외하고는 너무도 ‘완벽한’ 신정체제를 조직했던 노예출신 유대인들의 지도자 모세(Matheron, 1969/2008: 10장)가 떠오른다. 이러한 증여자, 권력자, 자본가, 예언자는 각각 자신이 교육의 이상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Durkheim(1956: 58)이 Kant의 보편적 교육의 정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시대마다 요구되는 특수한 교육의 정의를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교육은 시대적 정당성을 가질 뿐, 보편필연적인 논리적 정당성을 갖지는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가라타니가 제시하는 교환양식들은 병렬된 것이 아니다. 그는 Kant를 지렛대로 삼아 교환양식DX에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준거적 지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연합교육이라는 교육양식은 다른 여타의 교육양식을 사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증여의 힘, 권력의 힘, 화폐의 힘, 또는 이상적 인간으로서 증여자, 권력자, 자본가는 그 시대 안에서는 칭송받거나 선망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연합의 힘, 또는 예언자의 기준에서 보면 각각의 부정성을 노출한다. 다시 말하여 증여교육(신화교육과 감각교육), 권력교육(문자교육과 무예교육), 화폐교육(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은 그 자체로 아무 부정적 측면이 없어 보이지만, 연합교육(자율교육과 평화교육)이라는 규제적 이

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그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증여는 폐쇄적인 공동체에 한정된 것이고, 상대를 의무감의 족쇄로 묶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의 계기는 될지언정 자유는 박탈한다. 권력은, 아무리 공동체적인 시혜의 위장을 해도, 역시 사후적 합법성의 폭력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심각한 변형을 거치지 않는 한, 자유나 평등의 계기를 가져오지 못한다. 화폐는 공동체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진 무한한 구매 가능성으로 인해서 화폐에 대한 맹목적 충동과 도착적 물신숭배를 조장하며, 인간노동력과 자연생장력을 포함하여 일체의 사물을 상품화하고 수단시하여 인간과 자연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사정은 교환양식DX와 세계공화국이 포괄적, 필연적, 보편적인 규제적 이념으로 승인될 때 힘을 가진다.

## 참고문헌

- 강신준(2008). 노동자 계급의 영원한 성서, 『자본』의 이론과 실천. Marx, K. (1890).  
*Das Kapital I*. 강신준 역(2008). 자본 1-1(pp.9-30). 서울: 도서출판 길.
- 박가분(2014).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고유명. 서울: 자음과 모음.
- 박도영(2011). 규제적 이념은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도래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에 대한 소고. *마르크스주의연구*, 11(4), 134-158.
- 이진경(2010). *코문주의: 공동성과 평등성의 존재론*. 서울: 그린비.
- 정규영(2011). *동서양 교육의 역사*. 서울: 학지사.
- 진태원(2005). 용어해설. Balibar, É. (1985). *Spinoza et le politique*. 진태원 역(2005). *스피노자와 정치*(pp.287-331). 서울: 그린비.
- 가라타니 고진(1989). 권기돈 역(1998). *탐구 2*. 서울: 새물결.
- 가라타니 고진(2000). 송태욱 역(2001). *윤리 21*. 서울: 사회평론.
- 가라타니 고진(2004). 이신철 역(2013).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맑스*.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04). 조영일 역(2008). *역사와 반복*.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04). 조영일 역(2009). *네이션과 미학*.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04). 조영일 역(2008). *문자와 국가*.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06). 조영일 역(2007). *세계공화국으로*.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10). 조영일 역(2012). *세계사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12). 조영일 역(2015). *철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13). 조영일 역(2013). *자연과 인간*. 서울: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2014). 조영일 역(2016). *제국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b.
- 고쿠분 고이치로(2013). 박철은 역(2015). *들뢰즈 제대로 읽기*. 서울: 동아시아.
- 나가자와 신이치(2001). 신옥희 역(2002). *신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 서울: 동아시아.
- 나가자와 신이치(2002). 신옥희 역(2003). *꿈에서 왕으로: 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서울: 동아시아.
- 나가자와 신이치(2003). 신옥희 역(2004).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물신숭배의 허구와 대안*. 서울: 동아시아.
- Bowen, J. (1972).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vol.1*. New York: Methuen.
- Clastres, P. (1974). *La société contre l'état*. 홍성흡 역(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서울: 이학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역(2001). **천 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 Durkheim, E. (1956). *Education and sociology*. S. D. Fox(trans.). London: Macmillan.
- Harari, Y. N. (2011). *Sapiens*. 조현욱 역(2015). **사피엔스**. 파주: 김영사.
- Kant, I. (1781, 1787). *Kritik der reinen Vernunft*. 백종현 역(2006). **순수이성비판 1, 2**. 서울: 아카넷.
- Kant, I. (1784).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 이한구 역(2009).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이한구 역(2009). **칸트의 역사철학**(pp.23-45). 파주: 서광사.
- Kant, I. (1788).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백종현 역(2009). **실천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 Kant, I. (1795). *Zum ewigen Frieden-Ein philosophischer Entwurf*. 백종현 역(2013). **영원한 평화**. 파주: 아카넷.
- Lévy-Bruhl, L. (1922). *La mentalité primitive*. 김중우 역(2011). **원시인의 정신세계**. 파주: 나남.
- Lowie, R. (1948). *Some aspects of political organization among the American aborigines*. London: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Ireland.
- Marx, K. (1857).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역(2007).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I**. 서울: 그린비.
- Marx, K. (1890). *Das Kapital I*. 강신준 역(2008). **자본 I-1**. 서울: 도서출판 길.
- Mauss, M. (1924). *Essai sur le don*. 이상률 역(2002). **증여론**. 서울: 한길사.
- Matheron, A. (1969). *Individu et communauté chez Spinoza*. 김문수, 김은주 역(2008). **스피노자 철학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서울: 그린비.
- Sahlins, M. (1972). *Stone age economics*. 박충환 역(2014). **석기시대 경제학**. 파주: 한울.
- Spinoza, B. (1677). *Ethica ordine geometrico demonstrata*. 강영계 역(2007). **에티카**. 파주: 서광사.

\* 논문접수 2017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7년 12월 8일 / 게재승인 2017년 12월 22일

\* 김영철 :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yc@chungbuk.ac.kr

## Abstract

## Modes of Exchange and Education Based on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by Kojin Karatani

Kim, Young-chu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aspects of education based on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written by Karatani which made the statement of the modes of exchange. Karatani had tried to systemize the world history on the modes of exchange as the fundamental concepts such as the reciprocal mode of exchange, the redistributive mode of exchange, the commodified mode of exchange, and the associative mode of exchange(mode of exchange DX). Four world systems such as the mini-world system, the world=empire, the world=economy, and the world republic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dominant mode of exchange. Among these four modes of exchange, the mode of exchange DX only has particular topos, the referenced criterion. This is just the same concept as the Kant's regulative idea. Karatani asserts that the mode of exchange DX as the regulative idea comes consistently in the world history as the return of the oppressed.

The researcher argues that the aspects of education are abstracted from the world systems and historical facts, and the modes of education are extracted from the modes of exchange. In other words, the aspects of education are the aspects of the mode of education, and the mode of education is the educational aspect of the mode of exchange. Myth and sensation education consists of the donative education. Literary and military education consists of the political power education. Civil and trade education consists of the monetary education. And autonomy and peace education consists of the associative education. Among the modes of education abstracted from the aspects of it, the associative education, the referenced criterion, has the power to evaluate the other three modes of education.

Key words: mode of exchange, world system, regulative idea, aspects of education, mode of education

\* First author,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